

# 지역 방위산업 생태계 고도화 전환점

### 전북대, 전북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35곳과 지역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거점국립대 육성 협약 체결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전북지역 방위산업벤처센터 협약기업 35곳과 손잡고 지역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거점국립대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대가 추진 중인 국방·방산 특성화 연구대학 전환과 AI 기반 교육혁신, 미래 핵심기술 역량 강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방위산업 생태계 고도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전북대와 35개 협약기업은 국방 및 방위산업 분야 공동연구와 기술개발,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기업 수요에 기반한 AI 융합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고, 국방·방산 분야 미래 핵심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과 융합형 R&D 기획을 함께 추진해 지역



전북대학교가 전북지역 방위산업벤처센터 협약기업 35곳과 손잡고 지역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거점국립대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혁신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험·분석 장비와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을 확대해 지역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방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취·창업 연계

생태계 조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기업들은 매년 1명 이상 국방사업 관리사 교육에 참여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방산 산업의 질적 성장을 함께 이끌어갈 예정이다.

전북대는 이번 협약이 지역 방위산

업 기반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학의 특성화 연구대학 전환과 미래 전략 분야 육성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연구와 기술협력 연구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혁신성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거점국립대 모델을 적극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협약은 전북대학교가 지역 산업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를 견인하는 거점국립대로 도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대학의 연구·교육 역량을 지역 기업과 공유하고, 국방·방산 분야 혁신 생태계를 함께 구축해 전북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전북 등 특별자치시도교육청

### 교육자치 실무협의체 개최

전북·제주·세종·강원 등 4개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의 교육자치 업무 담당자들이 전주에 모인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19일 본청 및 전주 완판본문화관 일원에서 2025년도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정기회의(이하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실무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간 특별한 교육분야 공동특례 발굴 및 중앙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연대조직이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교육청별 교육특례 입법 추진 현황과 발굴 특례를 공유하는 등 교육자치권 확대를 위한 발전 방향을 협의한다.

특히, 교육감 소속의 별도 감사위원 회 설치, 지원위원회 교육감 의견 제출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공유했고, 추진력 있는 실행을 위해 향후 국장급 협의체 개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 2025 올해의 수업혁신 교사상 전수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5층 교육감 접견실에서 2025 올해의 수업혁신 교사상 전수식이 열린 가운데,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사진 가운데)이 수상한 교사들에게 교육부장관 표창과 상금을 전달하고, 수업혁신 실천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있다.

## 전북 교사 7명 '올해 수업혁신 교사상' 수상

### 전북교육청 '체계적 수업 혁신 지원정책' 성과 입증

전북 교사 7명이 올해의 수업혁신 교사상을 수상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수업 혁신 역량을 입증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주최한 2025년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에서 도내 초등교사 3명, 중등교사 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수업혁신 교사상'은 교실수업혁신 공적이 탁월한 교사를 발굴·시상하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 표창과 상금 100만원, 해외연수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전국적으로 초등 54명, 중등 46명 총 100명을 선발한 가운데 전북은 7명이 선정, 전북교육청이 그간 추진해 온 수업 혁신 정책과 현장 중심 지원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내 수상자는 △김선희 장수초 교사 △최희이 전주양현초 교사 △허정수 전주초포초 교사 △김영경 이리남성여중 교사 △안태위 전주호성중 교사 △최민지 안현고 교사 △변경혜 남원여고 교사 등이다.

이들은 학생 참여 중심 수업, 교육과정 재구성, AI·에듀테크 활용 수업, 자발적 수업나눔 실천 등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수업혁신을 교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이번 성과는 전북교육청이 추진해 온 수업혁신 성장 인증제, 교원 맞춤형 연수 수업나눔 문화 확산 정

책 등이 현장 교사의 전문성 신장으로 이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6명에 이어 올해 수상자가 7명으로 증가하며, 전북형 수업혁신 정책의 지속성과 확장 가능성도 함께 확인됐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5층 교육감 접견실에서 전수식을 열어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이 수상자들에게 교육부장관 표창과 상금을 전달하고, 수업혁신 실천에 대한 노고를 격려했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교실에서 수업으로 답을 찾고 실천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는 선생님들의 노력이 전북교육의 경쟁력"이라며 "수업 전문성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선생님들이 더욱 힘을 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대, 학연 공동연구

### 연구기관별 성과포럼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글로벌 대학(X) 사업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 중인 학연공동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18일과 17일 이틀간 학연공동연구 연구기관별 성과포럼을 개최했다.

16일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간접공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참여해 8건의 연구성과를 소개했고, 17일에는 국가특성과학연구소,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ECO융합섬유연구원, 전북연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7건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재훈 기자

## 군산대 대학원, 동계 K-글로벌

### 프린터 프로그램 발대식

국립군산대학교 대학원은 지난 17일 제 학생회와 선제 고추콘솔에서 2025학년도 동계 K-글로벌 프린터 프로그램 선발팀 OT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2025학년도 동계 K-글로벌 프린터 프로그램은 5개 학과(부)에서 5개 팀(인문·사회·예체능 계열 3팀, 이·공학 계열 2팀)이 선발되어 중국, 독일, 영국, 캐나다 현지에서 활동하며 약 9천만 원 규모의 여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파견 대상 전 팀이 참석했으며, 연구 및 활동 계획 발표와 사전 안전교육 등이 진행됐다. /군산=김민호 기자

## '나눔으로 함께하는 전북교육'

### 전북교육청, 2025 교육기부의 날 행사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2025 전북교육청 교육기부의 날' 행사를 개최해 올해 교육기부 활성화에 힘쓴 개인과 교직원, 유학생, 기관·단체 등 총 9명(팀)을 '2025년 교육기부 유공자'로 표창했다.

올해 교육기부 유공자로는 김은권 전 남원이영교회 담임목사를 포함한 개인분야 7명과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등 단체 분야 2팀 등이 선정됐다.

김은권 전 목사는 2018년부터 전주인후초등학교 후문 일대를 정성껏 청소하며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 왔다.

소규모 학교를 찾아 퍼스널 컬러, 특수분장, 메이크업 등 다양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 확대에 힘을 쏟은 박은자 다혜에어샵 원장도 교육기부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이와 함께 △리드미 예술교육 확산으로 학생 공간능력 향상에 기여한 임희정 전북대 산학협력단 특임교수 △배식과 미용봉사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와 장학사업, 지역활동에 앞장선 고미자 삼례로라리클럽 이사 △학부모회 중심 교육기부 활동을 하며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협력적 교육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양혜지 대정초등학교 교사가 유공자로 선정됐다.

글로벌 문화교육에 참여한 유학생들도 이날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김재훈 기자

다. 전북대학교에 다니는 응웬티도안 유학생은 베트남 문화를 같은 대학 난민캠프인 유학생은 미얀마 문화를 초등학교생들에게 소개하며 다문화 이해와 글로벌 감수성 향상에 공헌을 했다.

기관·단체 부문에서는 전북도자원봉사센터와 전주시봉사단체가 대표로 표창을 받았다.

법도민 자원봉사운동을 전개하며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 온 전북도자원봉사센터는 올해도 교육청 교육기부 협력기관으로 '그린웨이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공익활동을 강화했다.

다담들은 10곳의 지역아동센터 아동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과학교실, 케이크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올해 굿데이 버스가 전북교육청에 2만5천여 원의 도서를 기증할 때 도서 분류작업을 도왔다.

전북교육청은 교육기부단 운영과 다양한 교육지원 확보를 통해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전북교육'을 목표로 교육기부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교육기부는 재능을 나누는 단순한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중요한 교육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과 단체가 교육기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국산 낙엽송에 약제 주입 신기술 개발

### 전북대 박희준 교수, 목재 고부가가치 첨단화 '농식품부장관상'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박희준 교수(생활대 주거환경학과)가 목재자원 고부가가치 첨단화 기술개발사업을 통한 탁월한 연구 성과로 최근 열린 제28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시상식에서 학술연구기술 분야 장관상을 수상했다.



목재를 통해 기술이전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에 기여하며 국산 목재 산업의 신성장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주요 성과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약제 주입이 어려운 국산 낙엽송 실대재에 균일하게 불연 약제를 주입하는 신기술이다. 이를 통해 미국의 화염전파성 시험 최고 등급인 Class A'를 획득했을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화재안전 성능 기준인 '준불연 등급도 확보했다.

더 나아가 해당 기술로 제조된 목재 외벽미장재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24호 '건축재 등 품질인증 및 관리기준' 실험체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 건축 외장재 시장에서 목재 활용의 가능성을 크게 넓혔다.

박 교수는 지난 5년 동안 산림청 목재자원 고부가가치 첨단화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며 S-COE 국제학술논문 15편, 지식재산권 16건, 신기술(NET)·녹색기술(GT) 인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인증 다수의 기술이전 등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뒀다.

특히 개발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상 /김재훈 기자

## RISE 기반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

### 전주대 한동욱 RISE사업단장, 중기벤처부장관상 수상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는 한동욱 RISE사업단장(이하 단장)이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 체계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인재양성, 연구개발, 창업·사업화, 정주'로 이어지는 RISE형 선순환 구조를 현장에서 구현하며 지역 중소·벤처기업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동욱 RISE사업단장은 "이번 수상은 RISE 체계를 통해 대학과 지역,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온 과정의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과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RISE 기반 모델 개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로 한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 및 지식혁신 협력 성과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18일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동욱 단장은 전주대학교 RISE사업단장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 RISE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대학 주도형 지역혁신 모델을 총괄 기획·운영하며,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지식혁신 협력 기반 혁신 체계